

나주시 햇빛소득마을 조성 박차...26개 마을 참여 신청

주민 주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운영 발전 수익 공유 수요 조사 바탕 부지 여건·사업성 검토 정부 공모 대응

나주시가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과 마을 소득 창출을 결합한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본격 나섰다.
나주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정

부 국정과제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을 단위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 26개 마을에서 총 16.9MW(메가와트) 규모의 사업 참여 의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나주시 공산면 일대 주택과 건물 지붕 곳곳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용 패널. (나주시 제공)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구조의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정부는 연간 500곳 이상, 2030년까지 2500곳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마을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확인했다. 또 부지 여건과 주민 동의, 사업성 등을 종합 검토해 정부 공모 절차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태양광 설비는 마을 특성에 따라 유희부지, 영농형(전·담·과수원), 지붕형(창고·축사), 공공부지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며 설비 규모도 300kW(킬로와트)에서 1MW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 마을로 선정되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 이내에서 장기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계통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설치도 추진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의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를 만드는 사업"이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맞춰 나주형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의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를 만드는 사업"이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맞춰 나주형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양 무월마을 전국 최고 농촌휴양지 '으뜸촌'

지난해 등급평가 전 부문 1등급

담양 대덕면 무월마을(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급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으뜸촌'에 또 다시 선정됐다.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제도는 농촌관광시설 이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와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담양군은 달빛무월마을, 운수대동마을, 학동마을 등 3개 마을이 신청해 고루 높은 성적을 거뒀으며, 그 중 무월마을이 체험, 음식, 숙박 등 모든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다.

전남에서 으뜸촌으로 선정된 2곳(무월마을, 안도 신학마을) 중 한 곳으로, 담양군에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무월마을은 2013, 2015, 2017, 2023

년에 이어 올해까지 총 5회째 으뜸촌에 선정돼 대표 농촌여행지로 자리했다.

'신선이 달을 어루만지는 듯한 아름다움'이라는 의미의 무월마을은 전통 한옥과 돌담길이 어우러진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농산물 수확, 음식 만들기, 공예 체험 등 프로그램으로 소규모 농촌체험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으뜸촌은 정부 공인 인증마크와 함께 농촌관광포털 '웰촌'을 비롯해 각종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 우선 지원, 향후 정부와 지자체 관련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흥운 무월마을 위원장은 "2016년 경관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할 만큼 아름다운 무월마을은 자연 속에서 체험, 숙박, 식사를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라며 "도시생활에 지친 분들이 오셔서 진정한 휴식과 여유를 만끽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무월마을은 2013, 2015, 2017,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총 5회째 으뜸촌에 선정돼 대표 농촌여행지로 자리했다.

강진군, 인프라 정비·확충...상수도 보급률 92%로 높인다

여과수 개발·정수장 재건축 추진

강진군이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노후 시설을 전면 정비하는 등 물 복지 강화에 나선다.

강진군은 병영천댐 조성과 강진취수장 강변여과수 개발, 노후 정수장 정비 등 미래지향적 상수도 인프라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변여과수란 하천 옆 모래층이나 자갈층을 통과하며 자연적으로 여과된 물을 취수하는 방식으로, 일반 하천수보다 수질이 깨끗하고 안정적인 것이 특징이다. 군은 현재 실시단계 단계인 사업을 통해 강진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 개선 효과를 거둘 방침이다.

군은 홍수 예방과 용수 확보를 위한 병영천댐 사업 추진을 위해 수자원공사와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준공 후 50년이 넘는 노후 강진정수장을 재건축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현대적인 정수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역상수도 보급률 확대도 순조롭다.

지난해 87%였던 보급률을 올해 9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전 송월·도립지구는 상반기 내 준공하고, 성전 월남지구와 도암 강성지구는 상반기에 착공한다. 군동 급곡지구는 올해 실시설계를 추진해 미급수 지역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수돗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관 세척 사업도 이어간다.

지난해 병영면 일대 10km 구간을 완료한 데 이

어, 올해는 도암면과 신전면 구간 약 10km에 대해 상수관로 세척을 추진해 수돗물 탁도를 낮추고 잔류염소 농도를 적절히 유지할 계획이다.

급중하는 물 수요에 대비한 배수지 시설 확충도 병행된다.

성전·칠량배수지를 증설하고 급곡·구로배수지를 신설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설계를 발주한다. 원격자동검침 시스템을 확대 도입하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구간인 유수율을 93%로 유지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한다.

강진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시설 확충과 정비를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시설 확충과 정비를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평군,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협약

군공립요양병원·함평성심병원과 돌봄공백 완화·의료 지원 협력



함평군이 운영하는 어르신 재활운동. (함평군 제공)

함평군이 어르신들이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돌봄 환경 체계 구축에 나섰다.

함평군은 최근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함평군공립요양병원·함평성심병원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퇴원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병원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속적인 건강 관리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병원은 퇴원 예정 환자의 신체 기능과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함평군에 연계하게 된다.

함평군은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건강 관리와 방문 의료,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군은 앞으로도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와 돌봄, 일상생활 지원, 주거 지원 등을 포함한 '함평형 돌봄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장성군, 올 3대 전남생활체전

조직위 발대식...성공 개최 다짐

장성군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위원회는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조직위원장은 장성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체육회장·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3인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언론인, 체육회 임원 등 19명이 임명됐다. 예정돼 있는 3종의 생활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 역량을 모으게 된다.

올해 장성군에선 제21회 전라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5월 14일~15일), 제38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9월 12일~14일), 전라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10월 15일~16일)가 열린다.

군은 지난해 전남체전·전남장애인체전 성공 개최의 경험을 살려 올해 생활체육대축전 준비에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장성군수 장성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장학생 선발

3월 6일까지 신청...2억여원 지급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가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2026년도 장학생 및 특별격려 장학생 선발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모집에 나선다.

올해 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2억3000만원으로 대학생과 관내 고등학교 진학 학생·저소득층 학생은 물론 각종 대회 입상자와 체육특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를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선발 분야는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문주장학생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저소득 고등학생 ▲특별격려 장학생 등이다.

학업 성적과 관내 학교 졸업 여부·다자녀·저소득 가구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할 방침이다.

장학금 신청 기한은 3월 6일까지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최종 선발 결과는 4월 중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관계자는 "이번 장학 지원이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꿈에 전념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흥군의 미래를 이끌 인재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담양군 원스톱 통합돌봄 서비스 4월부터 시작

의료·돌봄·주거·일상 지원 하나로

담양군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4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의료·돌봄·주거·일상 지원을 하나로 연계한 담양형 통합돌봄 체계는 군민이 정든 집을 떠나 시설로 가는 대신,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군민 안심 복지의 핵심이다.

고령 1인 가구와 노인 부부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만성 질환과 거동 불편 등 복합위기가 커진데 따른 선제 대응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대상자가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했던 기존 돌봄 서비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부터 연계, 사후 관리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로 돌봄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이미 2024년 보건복지부, 2025년 전남도 시범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병원 동행, 도시락 지원 등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담양군은 올해 8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충해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퇴원 환자 돌봄도 한층 강화했다. 관내 병원과 협약을 맺어 퇴원을 앞둔 환자의 사회·경제적 형편과 신체기능 수준을 파악해 돌봄 대상자를 연계하고 맞춤형 방문 의료와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청소·세탁·식사 등 틈새돌봄은 물론 영양·도시락 배달, 이미용·목욕·이불 빨래 방문서비스까지 빈틈없이 채웠고,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치유 농업 프로그램까지 담양만의 특색 있는 복지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나주시, 내년 농식품 국비사업 1419억 신청

역대 최대 규모...49개 사업 확정

나주시가 2027년 농림축산식품 분야 국·도비 확보를 위해 1419억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신청한다.

나주시는 최근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49개 사업에 대한 예산 신청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청안은 이달 내로 전남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국·도비 반영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주요 신규 사업은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2억5900만원)', '주산지 일관 기획화(2억원)',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3억원)' 등이 포함됐다.

나주시는 이를 통해 영농 비용을 낮추고 기계화와 수리시설 개선으로 농업 생산성과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나주시는 '천년이를 나누매', '나주들애잔한' 등 지역 대표 농축산물 브랜드 육성과 수출 확대, 청년 농업인 유입을 통한 농촌 활력 회복에도 힘을 쏟고 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